

종합·해설

■ 민선 5기 이것이 현안이다

광주 북구

무등경기장 대책 빨리 나와야

민선 5기를 맞는 광주시 북구에 도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돛구장과 관련한 무등경기장 활용 문제, 도심 공동화 해소를 위한 광주역 역세권 개발, 용봉 IC의 진출로를 개설해 교통불편을 줄여나가는 것 등이다.

광주교도소 이전 부지의 활용 방안과 첨단산단 2단지 기업 유치

구도심 재개발사업을 통한 도심 공동화 해소도 절실하다. 임동·중앙동·우산동·중흥동·풍향동 등 노후 주택 및 영세상가가 밀집된 구도심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 그 것이다. 광주역 인근의 유희부지를 활용해 친환경 녹색 철도역사공원을 조성하고 복합 상업시설을 유지하는 등 정비 사업도 필요

업인프라를 확충하고, 매출과 고용을 높일 중소기업을 유치해 광주의 새로운 경제 원동력으로 만들어야 할 시기다.

여성·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인·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여성주부 지원,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광주시와 함께 청년실업자나 퇴직자·장애인 등의 취업 대상자를 상대로 창업 지원과 일자리 상담·저소득층 일자리 기회 제공 등을 확대해야 한다.

날로 심화되는 노령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노인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고 실버인터넷 교육이나 소규모 창업 지원 등 노인 일자리 확대 정책과 노후화된 노인 편의 시설 개선도 서둘러야 한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민선 4기에서 기초를 닦은 사업들을 모두 마무리짓고, 광주시의 지혜를 모아 세밀한 추진 전략으로 희망찬 문화복지 공동체를 만들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lee@

구도심 재개발 통해 도심공동화 해소 절실

교도소 부지 활용·첨단산단 기업유치 시급

도 시급한 과제다.

무등경기장 문제는 가장 큰 현안이다. 송광운 구청장은 현재 야구장을 KIA타이거즈 2군 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지금의 축구장부지에 새 야구장을 건립한 뒤 그 지하에 수영장 등 복합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9일 한국경제연구원 광주야구장 건립 사전조사 용역 결과 무등경기장 축구장 부지에 야구장을 건립할 경우 구조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 난항이 예상된다.

한다.

지난 1983년 12월31일 준공된 본촌산업단지는 부자재 및 생산제품의 운송에 큰 역할을 하며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노후화된 하수관과 도로시설, 공장건물은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다. 136개 기업·2000여명이 일하고 있는 본촌산단의 회생 프로젝트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수 요소다. 또한 광산업의 중심이 되고 있는 오룡동·대촌동·월출동 등 북구지역의 첨단산단은 2단계 공사 준공과 R&D 특구 지정을 통해 산

“광주 R&D 특구 등 국비 지원을”

강운태 당선자, 중앙부처·국회 방문 예산 확보 광폭 행보

민선 5기 광주시정을 이끌어 갈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자가 중앙 부처와 국회를 잇따라 방문, 광주의 미래 청사진 마련 및 내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섰다.

민주당 광역·기초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해 21일 상경한 강 당선자는 2박3일 동안 서울에 머무르면서 정운찬 국무총리와 주요 부처 장관을 만나고 광주지역 국회의원과 예산간담회를 갖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강 당선자가 지방선거 이후 서울을 방문한 것은 처음으로, 인수위 활동으로 시기를 놓칠 경우 예산 확보 등

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일정을 조정했 것으로 알려졌다.

강 당선자는 21일 민주당 워크숍 도중에도 시간을 쪼개 정운찬 총리와 최상철 지역발전위원장, 함세웅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각각 만나 자신이 그리는 광주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강 당선자의 '구도심 재생 사업' 구상을 듣고 관련 법을 제정해 도와주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어 22일 오전에는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을 찾아가 포스코 LED공장 유치와 R&D특구 국비지원 등을 부탁했으며 오후에는

이만의 환경부 장관을 만나 영산강 상류인 광주천의 수질 개선을 위한 대책과 국비지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또 23일 오전에는 전제회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예산 지원을 요청한데 이어 여의도에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간담회를 열어 내년 국비예산 확보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오후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도 예정돼 있다.

한편, 강 당선자는 22일 광주·전남 국회 출몰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취임 초기 대기업 및 문화산업 유치와 R&D 특구 기틀 마련에 집중적으로 매진, 광주 발전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개원 앞둔 지방의회 '감투싸움' 추태

의장선출 놓고 줄서기·편가르기 곳곳 과열 조짐 속 폭력사태도

광주·전남 지방의회가 광역·기초 가릴 것 없이 의장 선거로 인한 각종 잡음으로 출발부터 흥역을 앓고 있다.

집행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과는 거리가 먼 '감투싸움'에 혈안이 되면 서 폭력 사태가 벌어지는가 하면 '경

력 싸기'를 위해 자리만 차지하면 된다는 식의 줄서기와 나눠먹기, 편가르기가 잇따르는 등 각종 잡음으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22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광주시의회는 현재 3선인 나종천(66·남구3선거구)·손재홍(50·동구2), 재선의

조호권(49·북구5)·진선기(45·북구1)의원 등이 초선 의원들을 상대로 전화 공세에 나서는 등 물밑 선거전이 치열하다.

특히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원장 독식 움직임에 비민주당계열의 반발도 터져나오고 있다.

전남도의회도 김재무(50·광양3선거구) 의원을 비롯한 이호균(48·목포3)·홍익식(52·화순2)의원 등이 의장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전·후반기 의장을 나눠서 하자고 했다'는 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기초의회도 비슷하다. 지방의회 의장의 경우 의회 대표로 자치단체의 사무감독권을 움켜쥐고 자치단체장과 버금가는 대우를 받는데다, 한달 수백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비서에 전용차량까지 제공받는다는 점에서 갖은 잡음이 터져나오고 있다.

광산구 기초의원들은 최근 지역 한 식당에서 의장 선출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이다 결국 격살잡이로 이어지면서 한 의원이 병원에 입원하는 등 추태를 보여 비난을 받고 있다.

장흥군의회는 7명의 의원들이 제각각 '연장자 순으로 하자', '군 소재지 출신이 낫다'는 등 소지역주의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지방의회 의장선거가 과열조짐을 보이자 시민단체 등의 비난 성명도 잇따르고 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최근 '6대 광주시의회에 바란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의회가 개원도 하기 전에 의장선거를 둘러싸고 또다시 불쌍사나운 자리 다툼과 도덕성 시비로 얼룩진다면 참신하고 개혁적인 의회의 모습을 기대했던 유권자들을 더 깊은 불신 속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민주당 광주시당도 "민주당 독점정치 우려스럽다"는 성명을 통해 "현재 민주당이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원구수부터 '민주당 독점정치'를 고착시킬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2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스폰서 검사 특검법 처리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스폰서 검사' 특검법 의결

국회 법사위, 특검 구성 인원 103명으로 축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난항 끝에 '스폰서 검사'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이강재 민주당 의원 등 야4당 의원 5명이 지난달 27일 발의한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 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의

임명 법률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여야가 애초 합의한 내용은 ▲법안 명에 드러난 특정 대상인 실명 제외 ▲수사대상으로 MBC 'PD수첩' 방영 사건 및 전현직 '공무원'의 불법자금 및 향응 수수 사건 포함 ▲참고인 동행명령제 삭제 ▲대법원장의

특검 임명 ▲35일간의 수사기간 ▲검사 5명, 파견검사 10명을 포함한 총 105명 규모의 특검 구성인원 등이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수사인원이 반대하다며 전례대로 특검 임명은 대법원장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또 수사대상과 관련,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배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격론이 벌어졌고 결국 정회 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다시 논의가 이뤄진 뒤 여야 회의를 속개, 세부 사안에 대해 다시 조정이 이뤄진 뒤 최종 상임위를 통과했다.

여야간 최종 합의의 하에 통과한 특검법은 기존 합의 내용 외에 법 시행 전 제기된 진정 및 고소·고발 사건으로 수사대상을 한정했으며 특검 구성 인원을 103명으로 약간 축소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공무원

1차: 6월 22일 오후 3시~
민선 5기 1차 시험

2차: 6월 26일 오후 3시~
민선 5기 2차 시험

***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수강료도 할인 받아 합격하세요! ***

특별이벤트
1학기 수강료 50% 할인

- ▶ 1학기 수강료 50% 할인
- ▶ 2학기 수강료 50% 할인
- ▶ 3학기 수강료 50% 할인
- ▶ 4학기 수강료 50% 할인

동영상 강의
개강 7월 1일

특별이벤트 2 ▶ 동영상 4개월 무료 수강권을 지금 ▶

개강 7월 1일

PEET/ MEET/ DEET

의학적대박 **신속대박** **효과대박**

진짜 의학대박 전문 검사장비 설치하는 토착형 악취 제거 장비

적중예상
문제풀이

기초이론만
이론만

토익/토플
토익/토플

개강 7월 5일

서울고시학원

1514-4530
sgs01.co.kr

서울정철전문학원

seouljch.com 1514-7211

MDPass 의학원

강지 283-6453
mdpass.co.kr